

1번 문제 공략

2015 인문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2015 사회	‘차이’와 ‘갈등’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2015 모의 인문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2013 인문	제시문 (가), (나), (다)에 공통된 주제어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2012 인문	제시문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정신활동에 대한 이해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2012 사회	‘한 사회에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2011 인문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시오.
2011 사회	제시문 <가>, <나>, <다>는 ‘과학적 탐구에 대한 여러 관점’을 나타낸다. 이 관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시오.

어떤가요.

문제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뭐죠? 캐치했나요?

기본적으로 연세대 1번 문제는 삼자비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세 개의 제시문을 ‘인간과 동물의 관계’, ‘차이와 갈등’ ‘죽음’ 등 문제에서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삼자비교형이 아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실제로 출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자비교형 문제가 대다수이고, 삼자비교형이 아닌 문제라고 하더라도 삼자비교형의 답안구조를 이용하여 풀 수 있기에 기본적 형태인 삼자비교형부터 완벽히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형적인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기본편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그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죠.

연세대 1번 문제는 제시문이 3개 나온다. 그리고 특별한 기준이 제시된다. 그리고 이를 비교하라는 문제이다.

됐나요?

실제 문제를 보면서 계속 말을 이어나가도록 하죠. 아래 문제를 보되, 지금은 배운 것도 없으니 괜히 문제분석하고 제시문 독해하고 하지 마세요. 시간낭비입니다. 문제유형을 익히기 위해서 저랑 같이 하는 겁니다.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이러한 특수성이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고유한 삶을 넘어서서 생각하거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 것은 인간됨의 근본 현상이 된다. 매장은 죽은 자를 신속하게 숨기는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은 무겁고 영원한 잠에 빠져 꿈쩍하지 못하는 자에게서 받은 충격적인 인상을 재빨리 지우는 것도 아니다. 그 반대로 인간은 상당한 노동과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죽은 자와 함께 머무르고자 하며 죽은 자를 산 자 가운데 꼭 붙잡아 놓고자 한다. 우리는 고대의 무덤들에서 발견되는, 죽음을 애도하는 여러 형태의 유물들을 보면서 그 풍요로움에 놀란다. 이런 유물들은 인간 존재를 영구히 보존하는 방식이다. 그것들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종교적인 사안도 아니고 종교를 세속적인 관습이나 도덕으로 전이시키는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됨을 이루는 근본이며 그것에서 인간 실천의 특수한 의미가 파생된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자연 질서의 궤도에서 벗어난 생활양식이다. 가령 새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삶의 본능도 놀랍지만 그 새들이 같은 종에 속하는 새들의 죽음에 대해 기피하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다. 이러한 대비는 인간이 생존에 대한 자연적인 삶의 본능을 어떻게 거스르기 시작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주체는 뭐죠? 인간이네요. 말하고자하는 대상은요? 죽음 혹은 죽은 사람정도로 하죠. 방법은 매장정도로 하면 되겠구요. 의도는 인간의 존재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결과는요? 이건 뭐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데 굳이 쓴다면 인간됨을 이룬다? 정도로 정리할게요. 범위는 인간에 국한. 죽음에 대한 태도는요?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긍정이죠. 죽은 자에 대한 충격을 지우기 위해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산 자 곁에 두려고 하는 것이니. 여기서 긍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 학생은 죽음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위의 기준에 따라서 표에 정리해서 내가 저 표에 정리된 내용을 보고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세세하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할 때마다 다릅니다. 글의 논지와 너무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합리적 이성으로 생각할 때 남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확신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시문 (나)

1980년 8월 5일 한 학생이 비소케산(Visoke Mt.)의 경사면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고릴라들을 보고 있었다. 관찰을 시작한 지 30여 분 후에 30미터 아래의 완만한 지대에서 이카루스가 ‘후-후-후-’하는 낮은 음조의 연속음을 내고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릴라들은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고 그 학생도 고릴라들을 따라갔다. 우두머리인 베토벤의 아들 이카루스가 나무 아래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늙은 암컷 마체사를 발로 차고 주변의 풀을 쳐대고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 마체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마체사는 아마 죽었거나 혼수상태였던 것 같다. 고릴라들은 주위에 몰려들어 이카루스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에피를 제외한 모든 고릴라들은 마체사의 사체를 잠깐씩 지켜보았다. 두 시간 가까이 과시행동을 하고 난 후에 이카루스는 나무 아래에서 마체사를 끌고 나와 때리기 시작했다. 이 폭행은 세 시간이나 더 지속되었고, 베토벤만이 때때로 찾아와 이카루스가 마체사의 시체를 끌고 가려는 것을 저지했다. 이카루스의 공격은 더욱 격해졌다. 때리는 것으로 모자랐던지 온 힘을 실어 마체사의 사체 위로 뛰어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고릴라들은 여전히 마체사의 사

체 주위에 모여 있었다. 이카루스는 밤새 그녀를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끌고가 폭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잠시 쉴 때만, 불쌍한 미란다는 움직이지 않는 어미의 차가운 팔 아래를 기어다니거나 젖을 빨려고 했다. 다른 어린 고릴라들은 조심스레 마체사의 입이나 항문을 나뭇가지나 혀로 살펴보았다. 에피의 52개월 된 딸인 파피가 마체사 위로 올라가서 반응이 없는 몸을 밀고 때렸다. 거의 의례적인 반복 공격을 하던 이카루스가 쉴 때마다, 무라하는 할머니 곁에 가서 털을 골라주었다. 고릴라들의 이런 행동은 적어도 이 집단의 경우에는 죽은 고릴라에게서 모종의 반응을 이끌어 내려는 것 같았다.

주체는 - 고릴라.

대상은 - 죽은 고릴라.

의도는 - 모종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과시행동을 하기 위해서.

방법은 - 폭행, 사체를 지켜봄.

결과 - 딱히 뭐 정리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범위 - 고릴라로 대표되는 동물의 세계.

죽음에 대한 태도는요? 죽음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네요.

제시문 (다)

데모크리토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부패를 피하는 것은 부패하는 것들의 악취와 추악한 모습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건강과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들이라도 죽으면 그런 상태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이다. …… [중략] …… 밀론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다 해도 죽으면 얼마 안 가서 해골이 되고 결국에는 최초의 자연으로 해체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체를 묘지로 보내는 것이다. 건강하지 않은 안색이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들어갈 곳이 장차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낼 만한 호사스러운 묘가 아니라 간소해서 볼품 없는 묘라는 것을 예측하고 비탄에 빠지는 것은 지극히 우매한 일이다.

…… [중략] ……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기피하는 것은 삶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이 애착은 삶의 즐거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죽음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일 때, 죽음은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언을 써놓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며 죽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데모크리토스에 따르면 “곶빼기 식사를 꾸역꾸역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된다.”

주체 - 인간이죠?

대상은 - 죽은 사람, 죽음

방법은 - 사체를 묘지로 보내는 것. 살아 있는 인간과 분리.

의도 - 삶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피하기 위해.

결과 -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해짐 - 곶빼기 식사를 꾸역꾸역 집어넣음.

죽음에 대한 태도 - 부정적

	(가)	(나)	(다)
주체	인간	고릴라	인간
대상	사체, 죽음		
의도	인간의 삶에 계속	죽음자체를 인식 못함.	인간과 분리

	놓아두기 위해		
방법	매장	폭행. 지켜봄.	매장
결과			
범위	인간	동물	인간
죽음	긍정	인식X	부정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6개의 기준과 1개의 특별한 기준.

그 중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제시하는 1개의 특별한 기준입니다. 주제, 대상, 의도, 방법, 결과, 범위는 어디까지나 겹가지 일뿐입니다.

명심.

다음으로 답안 구조인데,
외우세요.
원리는 가르쳐 드릴테지만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비교를 해야 하니 먼저 1문단에서는 공통점부터 씁니다.

공통점은 뭔가요? 문제만 보면 바로 나옵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가) ~ (다)의 공통점 아닌가요.

다음으로 2문단에서는 1:2로 찢어서 비교를 할 것입니다. 3개의 제시문을 1:1:1로 나누어 각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1:2로 나누어 비교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1-1로 나누어 써도 되지만, 글이 왔다갔다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가)와 (나)를 비교했다가 (나)와 (다)를 비교했다가 갑자기 (가)와 (다)로 갔다가 다시 B라는 측면에서는 (나)와 (다)의 새로운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2. 경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1:2로 나누면 2번만 비교하면 되는데, 1-1-1로 나누면 (가)와 (나), (나)와 (다), (가)와 (다) 총 3번을 비교해야 합니다. 연세대 1번 문제 답안 분량은 1000자 내외입니다. 이거 16문장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지 않은 학생은 이와 같이 제한된 분량 안에서 효율적으로 3번의 비교를 제대로 못하곤 합니다. 3번의 비교가 분량도 맞지 않고, 글이 초과되기도 하는 등.
3. 연세대가 2015모의논술에서 처음으로 학생들 답안에 대해 평가를 했는데 그 때 1:2 분리형식을 취한 답안이 좋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4. 몇 년 간의 답안의 정석적 구조로 그냥 이 구조를 취하는 것이 안정적이거든요. 1번 문제는 어차피 합격 불합격 못 가릅니다. 2번 문제가 중요하지. 1번 문제는 솔직히 2번 문제 답안까지 봐야하나 말아야 하나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부 좀만 하면

기본적 답안 구조에 매번 나오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 곧잘 풀어냅니다. 괜히 1번 문제 답안 구조의 독창성을 추구하지 마시고. 남들 쓰는 대로 1번 문제 쓰고 2번 문제에도 집중합시다. 쓸데없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결론은 그냥 1:2로 나누세요.

그럼 뭘로 1:2로 나누느냐.

주요한 차이를 드러내는 기준으로 나누면 됩니다.

위 (가) ~ (다)의 주요한 차이는 뭔가요? 한눈에 봐도 ‘주체’상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인간만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가)와 (다)를 (나)와 분리해주지 않나요?

(가), (다) - 죽음 인식 O 인간

(나) - 죽음 인식 X 고릴라

그래서 2문단에서는 (나)와 (가), (다)를 비교할 것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되도 그냥 흐름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3문단에서는요?

(가)와 (다)를 비교할 겁니다.

[1문단]

(가)~(다)의 공통점

[2문단]

(나)와 (가), (다)의 차이점 밝히기

[3문단]

(가)와 (다)의 차이점 밝히기

위와 같이 정리가 되나요?

1문단 작성해봅시다.

(가) ~ (다)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장에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해서 (가) ~ (다)가 모두 죽음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을 했으면 바로 (가) ~ (다)의 각 제시문에서 죽음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부분을 근거로 찾아 써줘야 할 것 같지만, 이는 문제자체에서 명백히 드러나있고, 어차피 뒤에서 (가) ~ (다)를 비교하면서 근거로 제시문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선 쓸 필요 없습니다.

2문단을 작성해봅시다. 주요한 기준으로 1:2로 분리해서 차이를 밝혀줘야 되죠? 여기서 주

의해야할 것이 두괄식으로 쓰는 겁니다. (나)의 고릴라는 어떻게 되는데~ ... (가)는 어떻게 (다)는 어떻게... 그런 게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세요. 명문사립대학이랍시고 지원한 학생들은 많은데 교수활동하느라 시간은 없고 눈도 나빠서 잘 보기도 힘든데 답안 하나하나 못 읽습니다. 결론부터 적으세요.

이런 문장 쓰지 마세요.

(나)는 (가), (다)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으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쓰라고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면 (나)는 A라고 보고, (가)와 (다)는 B라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명확히 밝혀주세요.

저 위에 써놓은 것처럼 쓰면 (나)는 (가), (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뒤에서 또 밝혀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 문장은 쓰나마나 아닌가요. 별 필요도 없는 문장으로 괜히 글자수 허비하지마세요.

(나)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고릴라의 태도를 드러내는 반면에 (가)와 (다)는 죽음, 사후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특수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 내용은 결론을 두괄식으로 주장한 것이니 당연히 근거를 써줘야겠죠? 기억하세요. 논술은 항상 주장과 근거로 이어집니다.

근거는 뭔가요? 내가 제시문이 각기 어떠하더라고 주장해줬으니 그 근거는 제시문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이 이 단계에서 제시문 요약하는데 너무 큰 공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제시문 내용 대충 편집해서 갖다 붙이는 건데 학생별로 큰 편차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각 제시문을 나누어 다면적으로 비교했느냐입니다.

이 때 제시문의 내용은 표를 보고 적어주면 됩니다. 표에 이미 주제 대상 의도 방법 결과 범위 등으로 나누어 제시문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물이 있거든요.

글로 설명하려니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 (가) ~ (다)의 공통점 - 근거 생략 가능.

2문단 - (가)/(나),(다) or (나)/(가),(다) or (다)/(가),(나)로 1:2로 분리.

2:1의 순서 (나), (다) / (가) 가 아닌 1:2의 순서 (가)/ (나), (다)로 서술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함. 왜냐하면 3문단에서는 2개로 묶은 두 개의 제시문을 각기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아래처럼 자유로움

예시)

1문단 - (가), (나), (다)

2문단 - 서술순서 - (가)/ (나), (다) - O ///// (나), (다)/ (가) - X

3문단 - (나) / (다)

이제 다 왔습니다.

1문단 맨 앞에 주제포괄형 문장 하나만 추가해줍니다.

주제포괄형 문장이란 하나의 문장으로 세 제시문의 공통된 핵심단어와 제시문 간의 차이를 드러내어 학생 본인이 1번 문제를 완벽히 이해했음을 채점위원에게 각인시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역할을 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채점해야할 답안지는 많고 시간은 없고, 다른 일도 많은 채점위원들이 여러분들의 답안에 그리 큰 관심이 없습니다. 길어봐야 2-3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선을 확 사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상 많은 학생들이 주제포괄형 문장을 적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습니다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1. 핵심단어 1개
2. 세 제시문의 차이가 은연중에 드러날 것.

이런 것이 있다 정도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세대 1번문제에 대한 답안구조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완벽히 이를 이해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처음부터 잘 하는 학생이 어디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답안구조를 외우기 위해 머리에 쥐날 때까지 이 페이지들을 붙잡고 있지 마시고, 대충 이해한 다음 바로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어차피 지금 가르쳐드린 1번 답안구조는 전형적이기에 뒤에서 우리가 다룰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외우면서 공부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어지죠. 그냥 대충대충 이해한 상태로 기출로 넘어가서 반복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답안 구조를 익히길 바랍니다. 그게 그나마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세대 1번 문제 답안 정리

[1문단]

①인간은 동물과 달리 인생의 목적지가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뭇 다르다. [주제포괄형 문장] ②세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개체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 제시문(A, B, C)의 공통점을 아우르는 대주제 설정]

[2문단]

③하지만 (나)는 죽음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동물의 태도를 드러내지만 (가)와 (다)는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제시문(A)를 두 제시문(B, C)와 분리하며 소주제 설정] ④(나)는 늙은 암컷 고릴라가 죽은 후 다른 고릴라들이 드러내는 태도를 보여준다. 아들 고릴라는 어미고릴라시체를 계속 폭행했으며, 아들 고릴라가 쉬는 동안에는 다른 고릴라들은 그 시체를 건드리고, 털을 골라주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고릴라들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고릴라들은 지속적으로 사체에 유형력을 가하여 암컷 고릴라가 그에 반응하여 다시 움직이기를 바랐다. [제시문(A)가 왜 두 제시문(B, 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제시문(A)에 대한 다면적 분석] ⑤(가)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수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패로 인한 악취와 추악한 물골과 관련 있다고 한다. [제시문(B, C)가 왜 제시문(A)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	
TIP	위 문제에선 (나)가 (가) 및 (다)와 분리되었는데, ‘(나)는 죽음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동물의 태도를 드러내지만 (가)와 (다)는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각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할 때 (나)의 요약 내용이 (가), (다)의 요약 내용보다 좀 더 길어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제시문을 요약할 수 있는 것은 글 전체적 구조로 볼 때 이 구간이 마지막이며, (가)와 (다)는 어차피 뒤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서로의 차이를 밝혀줘야 하기 때문에(즉, 3문단에서 (가)와 (다)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핵심) 2문단에서 (가)와 (다)의 공통점 ((나)와 대조되는)을 요약할 때는 각 제시문 당 1문장 정도로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3문단]	
⑥하지만 인간이 죽은 자를 매장하는 것에 대해 (가)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행위라 파악하는 반면에, (나)는 죽음을 기피하여 살아있는 자와 분리시키기 위한 행위라 파악한다. [두 제시문(B, C)를 분리하며 소주제 설정] ⑦(가)는 인간이 인간만이 가진 특수성, 즉 사후세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죽음을 삶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본다고 한다. 그래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매장으로써 죽은 자를 산 자와 함께 두어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다. [제시문(B)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⑧(나)는 인간은 부패를 그 악취와 추악한 모습 때문에 기피한다. 죽은 자의 시체는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인간은 죽음을 기피한다고 한다. 이러한 기피는 현세의 삶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산 자와 분리시키기 위해 매장한다. [제시문(C)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